

울산, 세계5위 석유화학 도시 도약

화학연구원, 100대 프로젝트 추진 ... 생산 132조원에 수출 550억달러

울산이 2020년에 세계 5위의 석유화학 도시로 도약한다.

울산시로부터 석유화학산업 발전 로드맵 연구를 의뢰받은 한국화학연구원(KRICT)는 2020년 울산이 석유화학 생산액 132조원(2008년 88조원)과 수출액 550억달러(2008년 367억달러)의 세계 5위 석유화학 산업도시 도약을 목표로 하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석유화학산업 발전 로드맵 연구에는 울산지역 석유화학기업 76사의 CEO와 실무자가 참여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화학연구원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고도화, 산업단지 리모델링, 신기술 연구개발, 산업단지 효율진단, 안전관리 향상, 클러스터 구축, 법제도 개선 등 8개 분야에서 100대 실천계획을 입안했다.

주요 실천계획은 울산석유화학단지과 여천단지, 용연단지, 온산단지 등 지역의 4개 석유화학 단지가 에너지 등을 교환할 수 있도록 파이프랙을 구축하는 사업과 업체간 잉여스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스팀통합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정밀화학기업이 모두 100개의 명품소재를 개발하고 이산화탄소(CO₂)를 활용해 친환경 고분자 수지 소재를 개발하는 그린폴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관련기업 지원과 직원 복지를 위한 석유화학종합지원센터 건립 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석유화학 물류 경쟁력 진단, 지하배관 전기방식 공동관리, 석유화학단지 연돌 녹색화, 법제도 개선(집단 에너지사업자 고체연료 사용허가 등) 등을 제시해 울산시는 11월 중으로 최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1/02>